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금융지주회사

- 농협에서 신용·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 가능성이 높아짐.
 -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보험업계와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을 3월 4일 전격 의결함.
 - 개정안에 의해 설립될 농협 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 규모가 약 20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5번째의 자산 규모임.
- 동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은행과 보험 등의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·판매를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로 내년 3월에 분리됨.
 - 금융지주회사는 NH은행, NH생명, NH손보 3개의 은행·보험부분과 NH증권, NH카드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.
 - NH은행은 일반은행이 가지고 있는 업무 이외에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지원, 농업자금대출 등의 현행 농업금융 관련 업무를 계속 유지할 예정임.
 - 경제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업무가 농·축산물 직판사업을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재원 및 인력구조도 이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전망이다.
- 또 하나의 초대형 금융지주회사의 탄생이 금융업권에 주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보험업권과 카드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.
 - 농협보험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자산규모가 약 30조원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생명보험업계에서 삼성, 대한, 교보생명과 함께 대형 4사를 형성할 수 있음.
 - 농협카드의 경우 규모나 시장점유율 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으나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시장지배력을 감안할 때 시장 진입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.

(농협법 보험·카드 지각변동 예고 등, 연합뉴스 등, 3/6)